

완도군 2023 전남체전·장애인체전 준비 순항

군, 체전추진팀 신설 등 조직개편...17억 투입 체육시설 보강 엠블럼 등 확정 “스포츠 관광도시 발돋움 위해 차질없이 준비”

완도군이 2023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은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체전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남체육대회와 전남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제62회 전남체전은 2023년 5월12일부터 15일까지, 제31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2023년 5월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완도군은 지난해 3월 31일 대회 유치가 확정된 이후 양 체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24개 종목 경기가 진행될 경기장 실사 후 총 17억 원 사업비를 투입,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행정 지원을 위해 부서별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대회 개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공모를 통해 대회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등을 확정했다. 전남체전은 ‘정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은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 등이다.

지난 7월 발대식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 운영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프레드대회도 제1회 완도 장보고배 전국 우수클럽 초청 친선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8개 종목 9개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1650여명이 참여하는 ‘2022 생활체육 한마당 큰잔치 행사’도 오는 10월 까지 열린다.



지난 7월 전남체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등이 성공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양대회가 200만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완도군이 스포츠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시급 1만100원

영암군, 내년 생활임금 첫 시행

영암군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도입하는 생활임금을 1만1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480원(4.98%)이 인상된 것이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광역시 14, 기초 101)에서, 전남은 전남도청과 목포·여수·나주·해남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다.

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나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목포 초·중·고생 ‘100원 버스’ 10월부터 시행

목포시가 10월부터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이하 100원 버스)를 시행한다.

100원 버스는 민선8기 목포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공약이다.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월 시행을 결정했다.

중·고등학생은 기본요금인 1200원에서 1100원, 초등학생은 기본요금이 750원에서 650원이 각각 할인돼 100원만으로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할인된 요금은 이용실적에 따라 목포시가 지원한다.

목포시 초·중·고등학생은 전체 인구의 13%인 2만8000여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시내버스 이용자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이용층이다.

100원 버스는 학생 양육 가정의 교통비를 경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교통복지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00원 버스 대상은 시내버스 이용자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으로 현금 이

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부모 등 타인 카드로 탑승할 경우엔 요금 납부가 불편하므로 본인 연명 인증이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하길 바란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큼 시재정이 한정됐음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결정했다”며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마다 상습 침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영광군 법성면·홍농읍 일대 구암지구 농경지 수해 현장 모습. <영광군 제공>

동화 속 도심정원서 ‘무안 판타지’ 즐겨요

‘전남 정원 페스티벌’ 30일 남악서 작가·시민·학생 정원 등 59곳 조성

‘제2회 전남 정원페스티벌’이 30일부터 나흘간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에서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전남도와 무안군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도심에서 동화 속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무안 판타지’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작가정원 2곳, 시민정원 25곳, 학생정원

12곳, 상가정원 20곳 등 59곳의 크고 작은 정원이 남악 중앙공원과 중심 상가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작가정원은 미니 하우스와 정원을 접목한 ‘무안한 놀이터(숲속 어린이 정원)’로 조성돼 행사 이후에도 아이들이 정원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유지한다.

시민정원은 정원의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게이트가든인 ‘무안한 길’로 조성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포토존이 조성되고 부대행사도 모스정원 만들기, 액자정원 만들기, 다육이 체험, 정원 119, 플라워 마켓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선보인다.

김산 무안군수는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원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며 “도심 속 색다른 정원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비상연락망 스티커 배부

목포 만호동행복센터

“위급상황이 생기면 스티커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세요.”

목포시 만호동행복복지센터가 ‘비상연락망 스티커’를 제작해 독거어르신 등 지역 1인 가구 300세대에 배부했다.

만호동은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화장실 벽면이나 냉장고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스티커를 붙여 긴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했다.

스티커에는 거주지 도로명주소 외에 응급전화 119, 복지콜센터 129, 동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고 가족·이웃·지인 등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최혜강 만호동장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스티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 법성·홍농 물난리 막는다

군 ‘구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모 선정 국비 132억 등 265억 투입 2027년까지 추진

영광 법성면과 홍농읍 일대 상습침수 지역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영광군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3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법성면과 홍농읍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인 구암지구가 선정돼 국비 132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6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영광군은 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구암천 2.2km와 합류하는 소하천 3곳을 정비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230ha, 주택·건물 22동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인근 어업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태풍과 홍수발생 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원 차단으로 굽비의 고장인 영광군 서해바다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국비 424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48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지역 6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법성면과 홍농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